

● 알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9.3 연중 제22주일

주 님 저 의 하 느 님 제 영 혼 당 신 을 목 말 라 하

Fine

나 이 다

1. 하느님의 당신을 저 영광의 하느님
2. 당신이 천국에 계시는 동안에 나를 보려고
3. 이 영혼을 구원하시어 영생을 주시옵소서
4. 정녕 영혼이 당신께 매달리 오니

저는 새벽부터 당신을 찾나이다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 하나 이 다
 성소에서 당신을 바라보나이다 당신 자애가 생명을 보이다 낮으로 이 배
 당신 이름을 부르며 두 손 높이 올리오리다 제 영혼이 기도를 지킴으로 배울
 당신 날개 그들에서 환호하나이다 제 영혼이 당신께 매달리 오

D.C.

물기없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이 몸은 당신을 애타게 그리 나 이 다
 제 영혼이 당신을 찬양하 나 이 다
 당신 오른손이 저를 붙들 나 이 다

● 알렐루야!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

9.10 연중 제23주일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Fine

마 라

1. 어서와 주님께 노래 부르 세
2. 어서와 앞드려 경배 드리 세
3.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세

구원의 바위 앞에 환광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성령야
"므리바에서처럼 마싸의 그날" 올골에서
세 세 림 리으 처 세 세 림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 장 아 가 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분 부 장 으 지 백 세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 마 라

D.C.

노래하며 그분께 환성 올리세
그분 손이 이끄시는 양떼로세
거기에서 너희 조상들은, 나를 시험하였고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떠보았다"

● 알렐루야!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리니,
하느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9.17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경축 이동

눈 물 로 씨 뿌 리 던 사 람 들 환 호 하 며 거 두 리 -

Fine

라.

1.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 실연사람 때, 네이, 들,
2. 그때 민족들이 말하
3. 주님 저희의 귀양하
4.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 람 들,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 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 치 고,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처럼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 람 에,
네 겹 땅 시냇물 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 람 들

D.C.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우리 눈 기뻐하였네.
환호하며 거두리라.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알렐루야!

주님, 저희 마음을 열어 주시어,
당신 아드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9.24 연중 제25주일

Fine

주님은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시네.

1. 나날이 당신을 찬미 하고,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양하나이 다.
2.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시네.
3. 주님은 가시는 길마다 의로우시고, 하시는 일마다 진실하시네.

주님은 위대하시고 드높이 찬양받으실 분,
주님은 모두에게 시며,
주님은 당신을 부르시는 모든 이에게,

D.C.

그분의 위대하심 헤아릴 길 없 어 라.
그 자비 모든 조물 위에 내리 시네.
진실하게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 시네.